

코로나19 위기 극복

“재난지원금 투입,
경제성장률(GDP)
높여”

최한수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



긴급재난지원금 접수

금리조정·감세로
경기부양에 한계

경기부진 막는 데
재정 투입이 효과적

코로나19 피해 돕는
지원금 정책이 이상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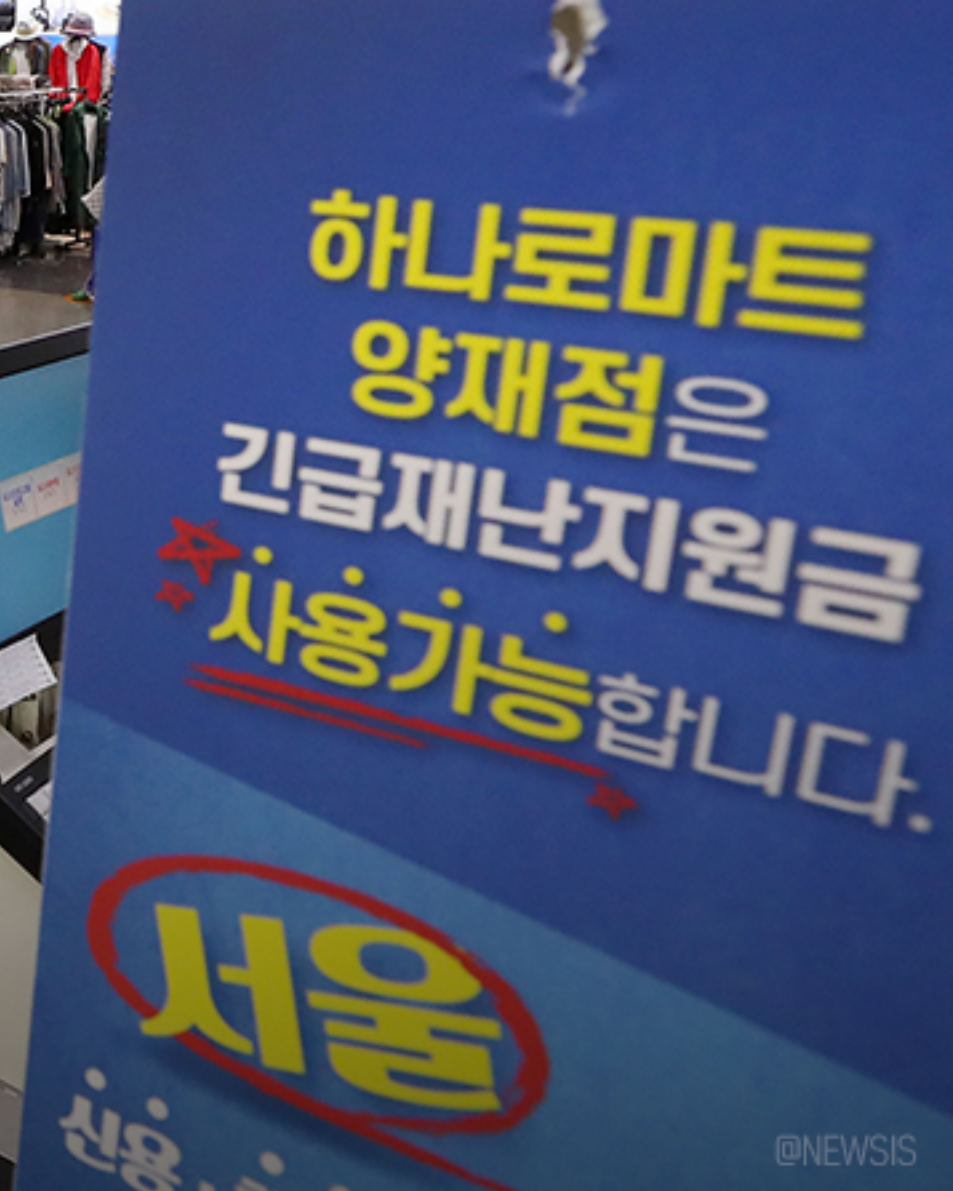
대한민국정부 긴급재난지원금

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
「모든 국민」께 드리는
정부
긴급재난지원금
안내

대 상
소득·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
(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상관없이 100% 수령 가능)

지원금액
성동구 재난지원금 총 817억 원
(성동구 46억 원 / 서울시 92억 원 / 정부 679억 원 부담)

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



전 국민 재난지원금 GDP 올리는 효과

소득 줄어 한계소비* 높은 때
재난지원금 효과 크고
**전 국민 지급 하면
경제부양 효과 더 커져**

*한계소비 : 소득 중 저축 없이 소비하는 비율

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 재고해 볼 필요

소득보전, 소상공인 보호 등
여러 목표 달성 욕심이
자칫 긍정 효과 해칠 수 있어

**철저한 성과 분석 결과
향후 정책에 반영해야**

경북대 경제학과
최한수 교수

공감 기고 요약
<재난지원금 GDP 성장률 0.15%포인트 높여>

